

줄기가 황금색을 가진 대나무 발견

- 왕대나무에서 황금색을 띄는 변종의 발견은 세계에서 처음 발견 -

- ◆ 산림청 임업연구원(원장 서승진)에서는 우리 나라 고유수종인 왕대에서 줄기의 홈 및 죽피(껍질)에 0.5~1.5cm폭의 푸른색 줄을 2~3개씩 띄면서 나머지 줄기 전체가 노란 황금색을 가지진 대나무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 ◆ 대나무줄기의 일부분 혹은 약간 노란색을 띄는 변종들은 중국 일본 등에서 10여종 보고되고 있으나, 이번에 발견된 왕대의 변종처럼 줄기의 대부분이 황금색을 띄는 확실한 변종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희귀성이 매우

높은 품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 ◆ 왕대나무에서 황금색을 띄는 변종의 발견은 세계에서 처음이며, 내한성이 강하여 가장 넓은 분포 면적을 갖는 왕대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줄기의 색깔이 아름다워 조경소재로 개발한다면 상품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 금후, 임업연구원에서는 세계국제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우리나라 고유의 육성품종으로 등록, 보호하면서 세계적인 대나무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왕호도나무 우량품종 대량 증식 성공

- ◆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왕호도나무 신품종들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접목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신품종 묘목을 빠른 시일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 ◆ 호도는 영양가가 많고 불포화 지

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급식품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과실이다. 소득향상을 위하여 1985년부터 집단으로 식재되어 현재 12,000ha정도 재배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은 1,200톤 정도로